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의 관련요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상희

2015년도 8월

대학생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의 관련요인

지도교수 김문두

김상희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06월

김상희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6월

목 차

서	론	1
방	법	3
결	과	5
고	찰	6
결	론	11
Table	1	12
Table	2	13
Table	3	14
Table	4	15
참고문헌		16
영문초록		19

서론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 및 전환의 시기로 청소년기에 못지 않은 심리적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고(1),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2). 이 시기는 동성 및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3). 하지만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에서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4). 청년기, 초기 성인기는 사회적으로나 심리,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시기로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집단 내 사회적 관계가 한 개인에게 심리,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사회적 공격성의 한 형태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격행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5), 국내에서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또래간의 따돌림, 괴롭힘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집단 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학교 가기를 꺼려하거나 (7),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8, 9), 우울, 불안 및 외로움 (10)등의 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령기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성인기에까지 고독,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곤 한다 (11).

대학생들의 자살과 우울의 위험요인으로도 생활스트레스가 지적되었는데 이중에는 가족, 친구관계를 포함한 관계상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12, 13), 대학생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개인적인 성취감이 높고 삶의 질이 긍정적이었으며, 집단 내 따돌림을 받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최근 미국에서는 교내 집단 따돌림을 당한 대학생의 살인, 자살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들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의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더 많았고 (15), 아동의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우울·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거나 부모 감독 수준이 낮을 경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피해와 그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 비만, 음주, 흡연, 신체만족도, 불면, 우울감, 자살사고 등 건강관련 및 임상적 요인과 이러한 피해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위치한 2 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전 동의서를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하고 설문지를 작성해준 967 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결과를 검토하여 충실히 응답한 총 941 명(97%)의 자료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제주대학병원 임상연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rad)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2. 연구 방법

자가보고식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당신은 지난 1 년간 교내 집단 괴롭힘(따돌림, 무시, 조롱, 놀림, 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를 질문하였다.

그 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 수준이 포함되었다.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비만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식사습관에 대해 조사하였고, 자신의 신체만족도에 대해 ‘만족’, ‘보통’, ‘불만’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불면 여부, 우울증상, 자살사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고한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를 계산하고, 과체중(overweight), 비만은 BMI 수준이 같은 성별, 연령에서 85 백분위 수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17).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과 관련하여 “최근 1 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1 년 동안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하였고, 우울증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척도로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사용하였다. BDI 는 총 21 개의 자가보고식 검사 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 점에서 63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18). 16 점을 절단점으로 사용하여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

3. 통계 분석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 및 임상 변인에 따른 두 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변수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혹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알기 위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중심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12.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 과

총 941명 중 남학생은 50.9%(n=479), 여학생은 49.1%(n=462) 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 ± 1.7 세였다. 그 중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총 82명(8.7%)이며, 남학생 43.9%(n=36), 여학생 56.1%(n=46)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2$),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이 대조군에 비해 음주문제($p=0.003$), 비만도($p=0.009$)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신체만족도($p<0.001$)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31.7% vs 13.2%, $p<0.001$), 자살사고 및 행동의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4% vs 16.1%, $p<0.001$) (표 3).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중심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odds ratio(이하 OR)=2.00; 95% confidence interval(이하 CI), 1.10-3.64], 비만(OR=2.20; 95% CI, 1.13-4.29), 신체불만족도(OR=3.92; 95% CI, 2.36-6.50), 우울 증상(OR=2.42; 95% CI, 1.53-3.85)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고 찰

본 연구 결과에서 제주 지역 대학에서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8.7% 였다.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Olweus 의 집단 따돌림 연구에서는 10.6% 의 피해경험이 보고되었고(20), Stephson 과 Smith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 집단의 따돌림 피해경험이 약 23%로 추정된다고 하였다(21).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2번의 또래 괴롭힘 피해가 30%, 거의 매일 괴롭힘 피해가 5.2%로 발생빈도가 국외 연구들에 비해 빈도수가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 보고의 수는 줄어들었다(2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빈도가 초등학생 20.4%, 중학생 19.7%, 고등학생 17.0% 였다 (23). 본 연구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8.7%로 이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긴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내 집단 따돌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대학생들의 교내 집단 따돌림의 발생빈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연구 또한 소수이긴 하나, Chapell et al. 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21-25% 로 보고되었고(31,32), Finn 의 연구에서는 10-15% 의 대학생들이 사이버왕따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33). 본 연구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빈도는 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도 그 빈도수가 낮는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 및 피해자들의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들 중 남학생은 43.9%, 여학생은 56.1% 로 성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 연구(24)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2$), 사회경제적 수준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2배 가량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의 환경이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평생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원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기도 한다 (16). 즉, 부모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전에 또는 조기에 알아차리고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25, 26), 부모의 부재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을 어렵게 하여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지속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건강관련 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비만은 약 2배, 신체 불만족도는 약 4배 가량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신체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는 교내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의 유발요인은 신체·외모 스트레스, 우울·불안,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요인 중 신체·외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신체나 외모적인 취약성은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외모에 대한 불만

족감은 자신감 없는 태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들에게 공격의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피해아들 중에는 자신이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신체적 취약함에서 귀인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27), 중학교 1학년 남, 여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신체적 능력 및 외모의 영향력을 밝힌 배아영과 이숙(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에서 자신의 외모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직접적,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 또는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체·외모의 부정적 지각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피해로까지 연결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신체 및 외모의 특성이 교우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반대로 주변으로부터의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외적 자기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문제($p=0.003$)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도 특히 교내 집단 따돌림은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고 (29),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 사용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보고되었으며 (30-32), 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알코올 사용 문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나(33-35)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31.7% vs 13.2%, $p<0.001$), 자살사고 및 행동의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4% vs 16.1%, $p<0.00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우울증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약 2.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아들이 보이는 우울·불안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신호가 되므로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경우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적 특성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이러한 자기비난 귀인양식으로 인해 이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36, 37).

초등학생 (38, 39), 초·중학생 (8), 중학생 (40), 중·고등학생 (41)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우울수준이 높고, 집단 괴롭힘 피해집단은 가해집단이나 일반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고,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외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집단 따돌림 피해청소년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2, 43). 또한 이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며 (44), 만성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지속적인 우울증상과 자살시도가 예견되기도 한다 (20).

친구의 지지를 자살과 우울의 보호요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친구의 지지를 통해 우울이 예방될 수 있고 (4), Ker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45), 최규련(2010)의 연구에서도 친구의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6). 긍정적 교우 관계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과 절망감을 극복하게 해주므로 (47) 자살과 우울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중, 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왕따 현상 등의 학교폭력이 덜 심각하지만, ‘따돌림’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함께 시간표를 짜고 옆에 앉을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함께 밥 먹을 친구나 선배조차 없는 경우, 시험을 앞두고 함께 공부할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학생 왕따’ 현상의 징후가 되며 심각해지면 중고등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살까지 경험하게 된다 (4). 대학이라는 큰 캠퍼스에서 나 혼자 뿐이라는 느낌과 학교에 가는 것이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면, 대학생들도 설 곳을 잃게 되며, 우울과 자살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비롯한 ‘왕따’ 친구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특정 지역(제주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있어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부재, 음주, 비만, 신체만족도, 우울감, 자살행동 등 다양한 요인이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일 시점에서 시행한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괴롭힘 피해 경험의 구체적 실태 및 중증도(횟수, 형태 등)를 포함한 면담, 제3자의 보고 등과 같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정보가 조사 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대학생에서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겠다.

결 론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총 82명(8.7%)로 조사되었다. 교내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비만, 신체 불만족도, 우울증상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교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교내 집단 따돌림의 관련 인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Table 1. Comparison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i>p</i>
	Yes (n= 82)	No (n=859)	
Sex			0.184
Male	36 (43.9%)	443 (51.6%)	
Female	46 (56.1%)	416 (48.4%)	
Parent marital status			0.002*
Married	63 (76.8%)	758 (88.6%)	
Divorced/separated/widowed	19 (23.2%)	98 (11.4%)	
Paternal education			0.684
> 12 y	42 (54.5%)	430 (52.1%)	
≤ 12 y	35 (45.5%)	395 (47.9%)	
Maternal education			0.734
> 12 y	22 (27.8%)	246 (29.7%)	
≤ 12 y	57 (72.2%)	583 (70.3%)	
Social economic status			0.001*
High	14 (17.1%)	145 (17.0%)	
Middle	47 (57.3%)	609 (71.2%)	
Low	21 (25.6%)	101 (11.8%)	
School records			0.557
Above average	19 (23.2%)	166 (19.4%)	
Average	40 (48.8%)	469 (54.7%)	
Below average	23 (28.0%)	222 (23.6%)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2. Comparisons of Health related condition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i>p</i>
	Yes (n= 82)	No (n=859)	
Overweight or obese	17 (20.7%)	94 (10.9%)	0.009*
Sleep disturbance	16 (19.5%)	117 (13.7%)	0.146
Problematic alcohol use	21 (25.6%)	116 (13.5%)	0.003*
Current smoking	12 (14.67%)	190 (22.1%)	0.115
Body dissatisfaction	55 (67.1%)	314 (36.6%)	<0.001*
Disturbed eating behaviors	11 (13.4%)	66 (7.7%)	0.070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mparisons of clinical related condition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Yes (n= 82)	No (n=859)	<i>p</i>
Lifetime suicidal behaviors			<0.001*
Yes	29 (35.4%)	138 (16.1%)	
No	53 (64.6%)	721 (83.9%)	
Depression			<0.001*
Yes	26 (31.7%)	113 (13.2%)	
No	56 (68.3%)	746 (86.8%)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presence of depression was defined as scores of 16 or more on the BDI.

Table 4. Factors associated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Variables	Controls vs Subjects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OR (95% CI)*	<i>p</i>
Low socioeconomic status	2.00 (1.10-3.64)	0.003 †
Parent marital disruption	1.68 (0.91-3.12)	0.098
Overweight or obese	2.20 (1.13-4.29)	0.020 †
Body dissatisfaction	3.92 (2.36-6.50)	<0.001 †
Problematic alcohol use	1.27 (0.67-2.42)	0.462
Depression	2.42 (1.53-3.85)	0.003 †

* The odds ratio (OR) was calculat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djusted for sex and age, †statistical significance.

CI: confidence interval

참 고 문 헌

1.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측변인. 청소년상담연구. 2006;14(1):49-62.
2. 박명신, 이희래.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2014;3(1):77-93.
3. 김동배 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5.
4. 박재연, 김정기.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4;21(1):167-89.
5.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2011;18(5):321-56.
6. 김은아, 김춘경. 집단따돌림을 주제로 한 창작동화 분석. 대한문학치료연구. 2011;2(1):31-57.
7. Boulton MJ, Underwood K.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 J Educ Psychol. 1992 Feb;62 (Pt 1):73-87.
8. 이춘재, 광금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00;13(1):65-80.
9. 최미경. 또래에 의한 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0.
10. Perry DG, Williard JC, Perry LC.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 1990 Oct;61(5):1310-25.
11.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4 Oct;35(7):1171-90.
12. 강석화, 나동석. 연구논문 :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3;20(4):49-71.
13. 김미선, 김명식.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로 우울 및 알코올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010;2(1):25-37.
14.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대학생의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한국교육문제연구. 2007;25(1):1-21.
15. 박진영, 채규만.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1;30(1):45-67.
16. 서미정 김. 집단따돌림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 Studies on Korean Youth. 2008;19(2):37-62.
17. Moon JS LS, Nam CM, Choi JM, Choe BK, Seo JW, et al. 200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review of developmental process and an outlook. Korean J Pediatr. 2008;51:1-25.
18. Beck AT WC, Mendelson M, Mock J, Erbaugh J.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1961;4:561-71.

19. Shin MS PK, Oh KJ, Kim ZS.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 Clin Psychol.* 1990;9:1-19.
20.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Oxford UK & U.S.A.; 1993.
21. D SPS.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P; 1989.
22. 김용태 박, editor.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고서 29: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23. 김혜숙, editor. *개별화 과정을 건강하게 하는 정서적 연결*.1997.
24. 박경숙 손, 송혜경. 학생의 왕따현상(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8:268-75.
25. Finnie V, & Russell, A. Preschool children's social status and their mothers' behavior and knowledge in the supervisory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988;24:789-801.
26. 천희영·옥경희·김미해.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2001;39(10):153-68.
27. Graham S, & Juvonen, J.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8;34(3):587-99.
28. 배아영·이숙.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대한가정학회지.* 2006;44(4):101-9.
29. Kathleen M. Rospenda P, Judith A. Richman, PhD, Jennifer M. Wolff, PhD, and Larisa A. Burke, BA.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Negative consequences for alcohol use. *J Addict Dis.* 2013;32(4).
30. Kaltiala-Heino R RM, Rantanen P, Rimpela A. Bullying at school--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 Adolesc.* 2000;23(6):661-74.
31. Radliff KM WJ, Robinson K, Morris J. Illum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substance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Addictive Behaviors.* 2012;37:569-72.
32. Tharp-Taylor S HA, D'Amico EJ. Victimization from mental and physical bullying and substance use. *Addictive Behaviors.* 2009;34:561-7.
33. MA-L V. Consequences of workplace bullying with respect to the well-being of its targets and the observers of bullying.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01;27(1):63-9.
34. Richman JA RK, Nawyn SJ, et al. Sexual harassment and generalized workplace abuse among university employees: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m J Public Health.* 1999;89(3):358-63.
35. Rospenda KM RJ, Shannon CA.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9;24:819-43.
36. 문진명.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또래 피해 지각에 따른 또래 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7. Graham S, Bellmore, A. D., & Mize, J.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6;34(3):363-78.

38. 이민아.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9. 최미경.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06;27(4):133-45.
40. 최지윤.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조절 양식의 중재효과.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 김정민 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성가족생활연구. 2008;12(2):115-28.
42. Prinstein MJA, J. W. Cognitive moderators of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peer rejection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4;32(2):147-58.
43. Slee PT.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994;25(2):97-107.
44. Hodges EVE, Malone, M. J., & Perry, D. G.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1997;33:1032-9.
45. Kerr DCR, L. J. Preuss, and C. A. King. "Suicidal Adolescents"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 Gender-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6;34(1):103-14.
46. 최규련. 가족 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0;28(6):95-111.
47. 김은정. 청년기 친밀감 형성과 자아정체감 및 애착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02;7:101-13.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Sang-Hee Kim, MD¹, Moon-Doo Kim, MD, PhD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941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in Jeju area. According to existence of bullying experience in college by studen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group and non-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group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various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depression(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health related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 total of 82 (8.7%) college students reported bullying experience in college by students. The associated factors of bullying in college were low social economic state(OR=2.00; 95% CI, 1.10-3.64), overweight (OR=2.20; 95% CI, 1.13-4.29), body dissatisfaction(OR=3.92; 95% CI, 2.36-6.50), depression (OR=2.42; 95% CI, 1.53-3.85).

Conclusions : These result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es and specified intervention to preven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Key words: bullying, college, student, associated factors.